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예비자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 사순 판공 성사

- 03월 07일(월)~04월 10일(일) 매 미사 30분 전후에 실시합니다.
- 평일 미사 전 십자가의 길을 하는 동안도 고해성사를 볼 수 있습니다.
- 판공성사를 보신분은 판공성사표를 교백소 앞 판공성사표 함에 넣어주시거나 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순 특강 (목요일 저녁 19:40)

일 자	제 목	강 사
03월24일	하느님이 이끄시는 일치	정혁 요셉 신부님
03월31일	십자가에 처형되신 예수그리스도	
04월07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	

● 십자가의 길 (월~토요일 새벽 미사까지)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 저녁(18:20)에는 담당 구역에서 합니다.
*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 구역 *

3/21(월)	3/22(화)	3/23(수)	3/24(목)	3/25(금)
8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3/28(월)	3/29(화)	3/30(수)	3/31(목)	4/1(금)
13구역	14구역	15구역	16구역	17구역
4/4(월)	4/5(화)	4/6(수)	4/7(목)	4/8(금)
18구역	19구역	20구역	21구역	22구역
4/11(월)	4/12(화)	4/13(수)		
23구역	24구역	1구역		

● 알 림

- 다음 주(03월 27일)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3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사순시기)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 받습니다.

● 시노드 모임 안내

- 03월 20일(일) 14:00 대성전에서 5지역 시노드 모임이 있습니다.
- 남성 시노드 2차 모임 안내
- 1지역/4지역 자체 실시
- 2지역 3월 27일(일) 12시 2교리실
- 3지역 3월 27일(일) 12시 3교리실
- 타 소모임은 위 시간과 장소를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 지역별 남성 신자 분들의 적극 참여바랍니다.

*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

- 목적 : 본당 설립 60주년 맞이 개인 신심 봉헌
- 기간 : 2022년 03월 ~ 2023년 09월 30일
- 방법 :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통독표에 표시한다.
- 배부 : 통독표는 구·반장을 통해 받으시고, 5지역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 다음 주일(03/27)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쉽니다.	청 소	1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03월 09일 ~ 03월 15일)

교 무 금		4,972,000원
주일헌금		3,397,200원
감사헌금	노용수10만원 김○10만원 신종구 5만원 김숙자 3만원 이우엽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 설	복 사	독 서
03/20	이인옥	심재순 김진수	김덕영 정연희
03/27	권태희	이응남 김영균	최웅조 김성해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03/20	최창열	박용환	김광수 김영배	이운영
03/27	김인기	박형순	박용환 박승환	장인홍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141. 세상의 다양한 나라들의 참된 가치는 그들이 단순히 한 나라만이 아니라 더욱 커다란 인류 가족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특히 위기의 때에 드러납니다. 편협한 국수주의의 형태는 이러한 무상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의 몰락에는 무관심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걸어야 자신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는 약탈자로 여겨집니다. 이는 가난한 이들은 위험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이며, 반면에 힘 있는 자들은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어리석은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이들을 기꺼이 그리고 ‘무상으로’ 환대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만이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적이고도 보편적인

142. 다음의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계화와 지역화 사이에서도 긴장이 생겨납니다. 편협함과 타성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계적인 차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계속 밟고 있는 지역적인 차원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두 차원이 결합될 때, 우리는 극단으로 치달지 않게 됩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추상적이고 세계화된 보편주의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은 민속 박물관이나 지역의 은둔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늘 같은 일만 되풀이하는 처지가 되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울타리 너머로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움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우리는 협소한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적 전망을 가져야 합니다. 집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폐쇄된 공간처럼 될 때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은 세계적 전망입니다. 이는 우리를 총만으로 이끄는 ‘목적인’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적인 것은 세계적인 것에 없는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으므로 지역적인 차원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곧 지역적인 것은 누룩이 될 수 있으며,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보조성의 기제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는 모든 사회에서 서로 분리 될 수 없는 동등한 두 개의 핵심축이 됩니다. 이 둘의 분리는 서로를 왜곡하고 위험한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색

143. 자신이 지닌 고유한 부요를 포기하는 개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듯이, 자기 나라와 민족과 문화적 뿌리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민족들끼리 서로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내가 견고한 토대 위에서 있지 않다면 나는 다른 사람과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나는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답례로 나 자신의 참된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민족과 문화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을 때에만, 나는 다른 이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특별한 기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집을 사랑하고 돌보며 직접 그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이 조국과 고향을 사랑하고 보살핍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선은 자기 조국에 대한 보호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나라에서 발생한 재앙은 결국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재산권의 긍정적 의미를 바탕으로 합니다. 곧 모든 이의 선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소유한 것을 돌보고 가꾸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